

# -다니<sup>1</sup>

어떤 사실에 대해 놀람이나 감탄 혹은 믿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어미

**[분류]** 어미(종결)    **[관련어]** -다니요, -라니<sup>1</sup>    **[형태 정보]** -다니, -라니 ◇-다니: 동사 어간이나 형용사의 어간, ‘았-’, ‘겠-’ 뒤에 사용한다. **[예]** 가다니, 먹다니, 예쁘다니, 작다니, 값다니, 하겠다니 ◇-라니: ‘이다’, ‘아니다’에 사용한다. **[예]** 학생이라니, 아니라니

## 용법

1. 【친구 관계나 그 밖에 아주 친한 사이에서 또는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쓰여】 뜻밖의 일이라서 놀라거나 감탄함을 나타낸다. 혼잣말로도 쓴다.

① 나하고 만나기로 해 놓고 안 오다니!

② 말로만 들었는데 네 약혼녀가 이렇게 아름답다니!

③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담배를 피우다니!

①은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온 것에 대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반문하는 것이고, ②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의 약혼녀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이다. ③은 또 담배를 피우는 사실을 보고 믿을 수 없을, 놀랐음을 나타낸다.

결합 정보

1. ‘다니’ 뒤에 그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, 감정 등을 나타내는 문장이 올 수 있어서 연결어미처럼 기능하기도 한다.

① 나하고 만나기로 해 놓고 안 오다니 그럴 수 있니?

② 말로만 들었는데 네 약혼녀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참 부럽다.

③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담배를 피우다니 실망했어.

④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마이크를 잡다니 정말 노래를 부르고 싶었군요.

⑤ 한 번에 시험에 합격하다니 정말로 대단하십니다.

⑥ 약속에 늦었는데 아직 출발도 안 하고 집에 있다니 화가 나네요.

2. 현재의 사실이나 습관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 ‘는다니’가 아니라 ‘다니’로 써야 한다.

① 아까 그렇게 많이 먹어 놓고 지금 또 밥을 먹다니!(○)

② 아까 그렇게 많이 먹어 놓고 지금 또 밥을 먹는다니!(×)

③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일을 시키다니!(○)

④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일을 시킨다니!(×)

보충·심화

1. ‘요’가 붙어 높임 표현 ‘다니요’가 된다.